

최치원[崔致遠]

시대를 만나지 못한 비운의 천재

857년(문성왕 19) ~ 미상



1 개요

최치원(崔致遠, 857~?)은 신라 말에 활동한 대문장가이자 학자, 관료이다. 그는 12세의 나이로 당(唐)에 유학을 가 7년 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인 빈공과(賓貢科)에 장원 급제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다. 특히 글을 잘 지어서 명성이 매우 높았다. 그는 신라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귀국하였으나, 골품제(骨品制)라는 폐쇄적인 신분제의 벽에 막혀 뜻을 펼치지 못하고, 말년에는 속세를 떠나 은거 생활을 하였다. 그는 신라 말~고려 초라는 변혁의 시대를 살아간 대문장가이자 학자였지만, 자신의 재능과 뜻을 펼치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었다.

2 출신과 가계

『삼국사기』 열전 최치원조(列傳 崔致遠條)에 따르면, 최치원은 신라 왕경(王京, 지금의 경북 경주시) 사람부(沙梁部) 사람으로, 857년(문성왕 19, 헌안왕 1) 태어났다. [관련사료](#)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신라시조 혁거세조(新羅始祖 赫居世條)에는 본피부(本彼部)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사료](#) 이때 신라

6부는 왕경의 행정구역명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신라 왕경 출신이었음은 분명하다. 자(字)는 고운(孤雲) 혹은 해운(海雲)이다.

기록이 없어 그의 집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몇 명의 가족 및 친척 이름만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는 견일(肩逸)로 원성왕(元聖王, 재위 785~799)의 원찰(願刹)인 송복사(崇福寺)의 창건에 참여한 인물이다. 또 형으로 화엄종(華嚴宗) 승려인 현준(賢俊)이 있었고, 종제(從弟)인 서원(栖遠)의 이름도 확인된다. 이것이 그의 가계에 대해 알려진 전부이다. 한편 신라에서 최씨는 6두품(頭品)을 대표하는 성씨여서, 최치원 집안 역시 6두품으로 여겨진다.

3 천재 소년, 당에 유학가 이름을 떨치다

최치원은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많고 현명했으며 공부하기를 매우 좋아 하였다. 그는 불과 12살의 나이에 당(唐) 유학을 떠나는데, 이때 그의 아버지 견일이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기대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천재였다. 관련사료 실제로 그는 당에 유학한 지 7년 만인 874년(경문왕 14)에 18살의 나이로 예부시랑(禮部侍郎) 배찬(裴瓚)이 주관한 빈공과(賓貢科,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 과거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2년간 낙양(洛陽)에 머물면서 시 짓기에 몰두하다가, 876년(헌강왕 2) 관직에 나가 선주(宣州) 울수현위(溇水縣尉)가 되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당에서 능력을 펼치는 것은 쉽지 않았다. 877년(헌강왕 3) 겨울 울수현위를 그만두게 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어 양양(襄陽) 이위(李蔚)에게 의탁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고변(高駢)의 추천으로 관역순관(館驛巡官)이 되어 다시 관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재능과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릴 기회를 맞이한다.

879년(헌강왕 5)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나자, 고변이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이 되어 난의 진압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4년 동안 최치원이 고변의 군영에서 표(表), 장(狀), 서계(書啓), 격문(檄文) 등의 글을 짓게 된다. 그가 쓴 글이 1만여 편에 달하였는데, 한결같이 뛰어난 문장들이었다. 특히 「격황소서(擊黃巢書)」는 당대의 명문으로 널리 알려지고 격찬을 받았다. 최치원은 이때의 공적으로 879년 승무랑 전중시어사 내공봉(承務郎殿中侍御史內供奉) 도통순관(都統巡官)으로 승진하고 비은어대(緋銀魚袋, 어대란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허리띠에 매달아 그 지위를 구분할 수 있게 한 장식인데, 당에서는 5품 이상 비색 관복을 입는 관리에게는 은어대를 주었고, 3품 이상 자색 관복을 입는 사람에게는 금어대를 주었다.)를 하사받았으며, 곧 이어 882년(헌강왕 8)에는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이로써 그는 당대의 대문호들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시인이자 문장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관련사료 강동의 시인 나은(羅隱)은 자신감이 대단하여 남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한데, 최치원에게는 자기가 지은 시 다섯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등 그를 각별히 생각하고 인정하였다. 또 같은 해에 과거에 함께 합격한 고운(顧雲)과도 친하게 지냈는데, 그는 귀국하는 최치원을 위해 시를 지어 송별하기도 하였다.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에 그의 저서 『사육집(四六集)』 1권,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이 기재되어 있고, “최치원은 고려 사람으로 빈공과에 급제하여 고변의 종사관이 되었다.”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어, 당시 최치원의 명성이 매우 높았고 그의 저작들이 중국에서 널리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관련사료 나중에 이규보(李奎報)는 중국인들이 『당서(唐書)』를 만들 때 열전(列傳)에 최치원의 전기를 신지 않은 것은 그의 글재주를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관련사료

4 신라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최치원이 문장으로 명성을 떨치기는 하였으나, 외국에서 관리로서 큰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그는 귀국하여 고국 신라에서 뜻을 펼치고 싶어 했다. 28살이 되던 885년(헌강왕 11) 당 희종(僖宗)에게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올리자, 희종이 그를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한다. 그러자 헌강왕(憲康王, 재위 875~886)이 최치원에게 시독겸(侍讀兼) 한림학사수병부시랑지서서감(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監)의 직위를 수여하고 신라에 남도록 하였다. 최치원은 귀국한 다음 해에 왕명을 받아 작성한 「대송복사비문(大崇福寺碑文)」을 비롯한 수많은 명문을 지었고, 당나라에서 지은 작품들을 정리하고 엮어서 국왕에게 바치는 등 관련사료 신라에서도 대문장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갔다.

하지만 관직에 나아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했던 최치원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당시 신라는 하대의 분열기로 쇠락해 가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호족 세력이 대두하면서, 신라 조정은 지방으로부터 세금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여 창고는 비고 재정은 어려워졌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혹한 수탈이 행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889년(진성여왕 3)에는 마침내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곳곳에서 봉기하게 되고, 이후 지방 세력이 분리 독립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최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890년 태산군(太山郡, 지금의 전북 정읍시) 태수(太守)를 시작으로 천령군(天嶺郡, 지금의 경남 함양군), 부성군(富城郡, 지금의 충남 서산군) 등지의 지방관을 역임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경력을 되살려 당에 사신으로 파견된 일도 있었지만, 지방을 전전하면서 어려운 국가 경제와 민생 문제,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일을 맡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최치원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것은 6두품이라는 그의 신분 때문이었다. 신라는 혈연에 바탕을 둔 폐쇄적 신분제인 골품제(骨品制)에 입각한 사회였다. 즉 최고신분층인 진골귀족이 아니면 주요한 요직에 아예 임명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치원과 같은 6두품 출신들은 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치원은 894년(진성여왕 8)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아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책 10여조를 진성여왕(眞聖女王, 재위 887~897)에게 건의하였다. 관련사료 이 개혁책은 그가 신라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진성여왕은 이 건의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개혁책은 중앙 정치권력을 독점한 진골귀족들의 시기와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진성여왕도 즉위한 지 11년 만에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카 효공왕(孝恭王, 재위 897~912)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물러나고 만다. 최치원은 퇴위하고자 하는 진성여왕과 그 뒤를 이어 새로이 즉위한 효공왕을 위하여 상표문(上表文)을 각각 작성하였는데, 신라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을 잘 묘사하였다. 이로써 그의 뜻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5 속세를 떠나 전설이 되다

이제 최치원은 신라 사회의 절망적 현실을 깨닫고, 40여세라는 이른 나이로 관직을 버리고 은거생활을 한다.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스스로 위로하였고, 산 아래와 강이나 바닷가에 정자를 짓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었으며, 책을 베개로 삼아 읽고 시를 읊조렸다. 전국에 그가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마지막에는 친형인 승려 현준(賢俊)과 정현사(定玄師)라는 승려와 함께 가야산 해인사(海印寺)에 들어가 머물렀다고 한다. 그 이후의 행적은 전하지 않아,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지은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를 볼 때, 908년(효공왕 12)말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관련사료](#)

비록 최치원이 생전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는 이후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기억되었다. [관련사료](#) 후대에 그는 비단 뛰어난 문학가로서만이 아니라, 훌륭한 사상가와 정치가로서 인식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그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비상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천명을 받아 신라를 대신할 나라를 열 것을 알고서 편지를 보내 문안을 드렸다고 하는 이른바 ‘밀찬조업(密譫祖業)’설이 퍼져 있었다. [관련사료](#) 실제로 최치원이 왕건에게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은 낮지만, 고려시대 최치원이 존경받고 정치적 식견이 뛰어난 인물로 인식되었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퍼졌음은 분명하다.

그는 고려 현종대(顯宗代)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문묘(文廟, 공자 이하 유교의 성현을 모신 사당으로 주로 유교교육기관에 함께 설치되었다.)에 배향되었는데, [관련사료](#)

이후 조선시대까지 문묘에 배향된 동국18현(東國十八賢) 중 한 자리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가 유학 사상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기에 일부 비판하는 주장이 있기도 했지만, 그의 문묘 배향은 유학자로서 추송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도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천재였으나, 신분제의 벽에 막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비운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신라 말 사회 변혁기에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변혁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좌절하여 은거생활로 일생을 마친 것은 그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사상과 학문 및 신라 말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등은 당시 신라 지식인들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어, 새로운 고려 중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